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주를 위한 이곳에  
이 몸에 무슨 소망있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7:23-38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년 또 40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 445)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저녁 7시에 건강한 은퇴계획을 위한 소셜배네핏 Zoom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 Social Security Medicare 은퇴계획  
강사: 차현화 사회복지사 / Zoom : 476-807-1656  
주최: 이민자보호교회 / 후원: 시민참여센터
3. 9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훈련(4)이 있습니다. 10월에 임직을 받을 장로, 집사, 권사 피택자들과 현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10/4) 주일예배 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용자 안건의 임시공동의회가 있습니다.
5. 10월 11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6. 인구센서스가 9월에 끝납니다. 아직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영상과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12,272

##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즉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듯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누릴 뿐만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온전한 공동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가정조차도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며,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으며, 공동체 의식이 가장 좋다고 인정받는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 동네가 가득한 아무 것도 없던 나라, 그러면서도 하나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유럽 각국의 용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입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프랑스혁명 당시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살 길이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조국 스위스의 번영을 위해 모두 죽음을 택한 사건은 지금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이 제일 강한 나라, 공동체성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이든, 가정이든, 교회가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떠올려야 할 말입니다.